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8일부터 본격적인 귀성전행이 시작됐다. 폭설과 한파로 어느 때 보다 고향가는 길이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귀성객들의 마음은 설레기만 하다. 설을 사흘 앞둔 7일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 아이들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새해 큰 절을 올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생2막 5년...소와 함께 부른 행복한 귀농歌

고흥 정착 차성준·안숙희 부부의 설맞이

마치 엄마 뱃속을 그리듯 자연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농, 귀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갖가지다. 가족, 건강, 가치관, 여유 등 그동안 도시의 일상에서 잊거나 외면했던 것들의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이 보내는 설도 특별한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고흥군에 내려와 소 100마리를 키우며 5번째 설을 맞는 차성준(67)·안숙희(57) 부부를 찾은 것은 설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오후. 파랗고 푸르스름한 새이 난 마늘밭 사이로 승용차 1대가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구불구불한 시멘트 길이 이어졌다. 한참을 들어가니 큼직한 축사 옆 신식 주택이 나타났다. 고흥군 점암면 천하리 122-1번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차씨 부부 외에 16명의 '시숙남'과 '형남'들이 취재진을 반겼다. 안씨는 거리낌 없이 나이 많은 동네 아낙은 형님, 남자는 시숙남이라고 불렀다.

"저를 낳추고 이웃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온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 망하고 타지에 숨어들었다는 등 갖가지 소문도 시간이 좀 지나니 사라지더라고요."

'사모님'이었던 안씨는 주민들을 알아가기 위해 마을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했다. 반말을 했던 마을 청년들이 이제는 형수님이라고 깽뚝이 대접해주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미소

지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차씨는 갑자기 망막 이상이와 실명 위기를 겪고 심장 박동 이상으로 3차례나 수술대에 올랐다. 은퇴할 나이도 됐고, 노후를 보내고 싶은 곳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강원도며, 경기도를 돌다가 친척 권유로 이곳을 찾았죠. 그냥 보고 상경하는데, 갑자기 조그만 축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내려가서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차씨는 150평 부지의 축사를 산 뒤 당분간 서울에서 지냈다. 하지만 계속 축사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결국 도시에서의 '첫 번째 삶'을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다.

"축사 옆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부부가 5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축산업 하려면 몸으로 부딪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500평으로 늘어난 축사에서 5년 동안 태어난 송아지는 모두 60마리. 단 1마리의 폐사도 없이 모두 건강하게 받아 길러냈다.

연고 없는 오지 귀농

100마리 축산 일궈내

정겨운 이웃이 버팀목

요. 서울 사는 아들(31)이 가끔 오는 데 허를 내드립니다." 안씨의 말이다. 하지만 이곳에 내려와 놀랍게도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고, 언제든 부부를 불잡아줄 정겨운 이웃들을 만났으며, 부부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소 100마리도 생겼다.

김치범(70) 이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올 때 걱정이 없었더니"며 "하지만 이들 부부의 삶을 지켜보며, 모두 감동했다"고 말했다. 서경자(여·69)씨는 거의 죽어

가는 송아지 2마리를 살려준 차씨에게, 17년 전 남편과 함께 귀농한 이미애(여·44)씨는 삶의 조언자가 돼 준 안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마을에서는 목거 노인도 많고, 도시로 간 자녀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 설과 추석에 마을회관에서 함께 치르고 있다. 차씨 부부는 시숙남, 형남들과 설을 어떻게 준비할 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어릴 적 그때처럼 들뜬 마음으로 설을 기다리고 있다.

/고흥=윤현석기자 chadold@



서울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고흥군에 내려와 소 100마리를 키우며 5번째 설을 맞는 차성준(67)·안숙희(57) 부부가 지난 3일 농장에서 소에게 사료를 주고 있다. /고흥=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900만 민족 대이동

짧은 연휴에 눈·한파 겹쳐 귀성·귀경길 주의

민족 최대의 명절 설(10일)이 다가오면서 8일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설 연휴를 전후한 8~12일 전국 귀성·귀경 인원은 지난해 2916만명보다 3만명 늘어난 29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기간이 짧은 데다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한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 측은 이번 설 연휴기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귀성·귀경 모두 서울~광주는 7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서울~목포는 소요 시간이 8시간 10분으로 전년보다 최대 2시간40분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70만대(설 당일 최대 445만대)로 전년보다 8.7% 늘고, 광주·전남권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24만대(설 당일 최대 30만대)로 전년에 비해 25.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전남권 교통량의 증가는 지난해 4월 개통한 남해선(영암~순천) 영향으로 이를 제외하면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체 시간대를 살펴보면 귀성의 경우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귀경은 10일 낮 12시부터 11일 새벽 2시, 11일 낮 12시부터 12일 새벽 2시까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혼잡구간의 경우 귀성은 서해안선 서천~동서천(분기점), 대전~춘장대, 호남선 삼례~전주 구간, 귀경은 서해안선 홍성~광천, 호남선 김제~삼례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고속도로 문흥~동광주 구간은 성묘차량과 귀경차량이 뒤섞여 혼잡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기간 TV와 라디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트위터, 핸드폰 문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에 대한 실시간·예측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설 연휴 동안 광주·전남지역은 8일부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9일 영하 6도, 10일 영하 4도를 기록하며 추위가 맹위를 이어가겠다. 12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십시오

光州日報 임직원 일동

연휴 날짜	8일(금)	9일(토)	10일(일)	11일(월)
	 구름 많음 -10/-2℃	 구름 많음 -6/1℃	 구름 많음 -4/3℃	 구름 조금 -4/4℃

설 특집 지면 안내

귀농·귀촌의 모든 것.....2·3면	볼만한 영화.....18면
4자녀 입양 가족의 설맞이.....8면	세시풍속·문화공연.....19면
무등산 원주민 특별한 설.....13면	광주·전남 생활 정보.....21면
설 연휴 가볼만 한 곳.....14·15면	설 연휴 TV프로그램.....22·23면

설 연휴 9~11일 신문 쉽니다



최고의 품질!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납품!

훈훈한 설명절 되십시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살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엔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사년에도 광일철강은 고객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